

봉 사

경희 함 허슬리 자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철'이 들면서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와 복음의 긍정적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 조금은 이해를 하게 됩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태어나서 인생을 마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진지하게 살아야 함도 인식하게 됩니다.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고 '사랑'의 궁극적인 형태는 '봉사'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사랑의 본질 그리고 사랑과 봉사와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가족에서부터 우리의 가까운 이웃 더 나아가 한 번도 접한 적이 없는 모든 사람에게 봉사를 통해 사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베풀 사랑에 대해, 아니 봉사에 대해 보수를 원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봉사와는 다른 진정한 사랑의 봉사를 경험했습니다. 감히 말로는 그 감사함을 표현할 자신이 없고, 글로써도 그 가치가 반감될까 두렵지만 많은 분들과 저의 경험을 나누고 그분들께 감사함을 표하고 싶습니다.

3년 전에 저희 부부는 조그만 집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댁과 가까이 있어야 하며 그레이트 솔트레이크가 보여야 한다는 저희들의 조건에 맞는 집을 찾던 중 아주 넓고 험한 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아버님은 그 집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셨고 두 분은 그 집을 새로운 집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흥분과 기대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그 작업을 늦가을에 시작했기 때문에 곧 겨울이 다가왔고, 직장에서 퇴근한 후 열심히 했지만 일의 진행은 언제나 더딘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했고 난방 시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 부부는 매서운 추위에 떨고 지내야 했습니다.

밤늦게 까지 저희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알아차린 이웃들이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도움이 단지 인사치레이거나 며칠, 몇 주일에 끝난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들의 일처럼 끝까지 도와주었습니다.

장로 정원희 회장님이신 밥 포스그렌 형제님은 항상 누가 저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시고 도움을 청하셨으며, 큰 명절인 추수감사절 아침에는 15명의 형제님들이 지분을 마무리하는데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봉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어떤 상호부조회 자매님은 자녀들을 데리고 오셔서 청소와 정리를 하신 후 돌아가셨고, 어떤 자매님은 음식을 준비하여 주시기도 하였고, 밥 형제님과 다른 두 형제님은 거의 매일 저희를 도와 주셨습니다. 남편이 없는 시간에도 세 분은 언제나 마치 당신들 일처럼 계획성 있고 질서있게 일을 진행해 나가셨습니다.

한 번도 자신들의 봉사를 과시하거나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잔잔히 미소를 짓고 계셨고 육체적인 봉사와 더불어 저희들로 하여금 커다란 사랑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그분들은 정년 퇴직을 하신 분들이었고 좋은 모습만큼 항상 훌륭한 옷차림을 했지만 험한 일들을 조금도 마다않고 해주셨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나고 잿더미 소녀가 아름답고 깨끗한 소녀로 변한 것처럼, 우리는 신데렐라 하우스라는 별명과 함께 조그맣고 귀여운 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댁 어른들은 간중 모임을 통해 그분들과 이 모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렸지만 오히려 그 감사함은 모자라는 듯했습니다.

주위의 훌륭한 이웃들에게서 감사함과 따뜻함을 느끼며 생활하던 어느날 저는 정원에 꽃을 모종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셨던지 밥 형제님은 훌륭한 예술 작품과 같은 아름다운 자신의 정원에서 이꽃 저꽃을 뽑아 오셨습니다. 땅을 파고 그 꽃을 심고 있을 때 비가 오기 시작했고 저는 밥 형제님께 그만두고 맥으로 돌아가시길 권유했지만 그분은 감기에 걸리면 아이들 엄마가 고생이라며 오히려 저를 집안으로 들여보내시고는 비를 맞으며 모든 것을 끝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다 보니 집을 완성한 후에도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노동의 가치를 귀하게 생각하는 남편은 모든 것을 스스로 이루어 가길 원했습니다. 우리는 조금씩 정원 일과 주변을 정리하면서 차도를 넓힐 계획을

하였는데, 그것을 넓히기 위해 아주 많은 노력과 어려움이 뒤따랐습니다. 드디어 시멘트를 깔고 차도를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날 한 형제님이 저희에게 다가와 주인이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전혀 안면이 없는 분이었는데 자신은 매일 이 길을 산책하던 사람으로서 시멘트 공사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도움을 주고 싶었는데 괜찮을 지 물었고, 그 분과 한 연로하신 형제님의 도움으로 모든 일이 훌륭하게 끝났습니다. 저희는 상응하는 보답을 해 드리고 싶었지만 그것은 오히려 그들의 송고한 봉사에 누를 끼치는 결과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랑을 느끼면서 참으로 깊은 감사와 더불어 커다란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실한 사랑의 형태와 봉사의 관계,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를 체험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생각했던 것처럼 행하고자 결심했던 것들을 잘 실천해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작은 일에서 큰 일이 생겨나는 것처럼 조그만한 일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가운데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곳에 '봉사'라는 단어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먼저 어디에서 부터인가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을 일으키듯 나 하나의 작은 봉사를 통해 세상은 좀더 사랑이 가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그릇의 사람인지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아픔을 주는 일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저의 사람됨에 상관없이 항상 많은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여 주시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훌륭한 이웃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항상 사랑안에 거할 수 있고 이러한 결심이 참으로 헛되지 않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

(경희 함 허슬리 자매는 현재 발 베르타 스테이크 발 베르타 제1와드에 소속되어 있으며 가사 모임 보좌로 봉사하고 있다.)

-신임 선교사 간증-

“나는 할 수 있다”

한금신 자매

12일 동안의 선교사 훈련원 일정이 끝났습니다. 내일 퇴소식을 남겨놓고 모두 짐을 정리하느라 야단입니다. 오늘 밤은 잠이 올 것 같지 않습니다. 어느 지역으로 갈지 어떤 동반자를 만나게 될지 가슴이 설레이기만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라는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회원들을 떠나 올 때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자라는 특별한 부름의 의미를 생각할 때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개인적인 소망을 잠시 뒤로 한 채 떠나 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23명이 모인 선교사 훈련원에서의 일정이 시작되었고 저녁 늦게까지 계속되는 여러 교사님들의 가르침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때때로 너무나도 부족하고 불필요한 교만과 선입견을 갖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을 때 괴로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자신을 버려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렇게 하기 위해 많이 노력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조금씩 조금씩 잘 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격려했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하고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간구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속에 이러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그분께 귀기울이고 나아가려 했을 때 저에게 커다란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언니·오빠가 저를 찾아왔고 아버님이 편찬으시기 때문에 집에 가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짐을 꾸려서 집으로 가는 저의 마음은 너무나도 무겁고 두려웠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저를 집으로 오게 한 이유가 사실이 아니었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 부름을 받아들이고 행하고자 하는 저의 강한 소망만큼이나 큰 방해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고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밤이 되도록 소리를 높혀 하늘에까지 소리가 들리도록

부르짖”(이노스 1:4)었던 이노스의 간절한 기도를 생각했습니다. 저는 구하면 주신다는 신앙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께 간구했고 결국 4일 후에 선교사 훈련원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업은 결코 중단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 잠시 큰 시련이 지나갔지만 이 일로 인하여 저는 선교 사업의 뜻과 목표를 좀 더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금식하고 기도해 준 148기 동료들에게 저의 사랑과 감사를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심을 믿으며 우리를 위해 살아계신 예언자를 두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자로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분의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18개월 후 이곳 성전에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아버지께 저의 행한 약속을 겸손하게 보고하고 싶습니다.

선교사 훈련원에서 보낸 시간은 특별했으며 결코 잊지 못할 느낌들이 이곳에 있음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자입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교회 교육 기구

신학 연구원 대학부 신입생 모집

한국 교회 교육 기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1993년도 1학기 신학연구원 대학부 신입생 모집 요강을 발표하였다.

- 등록 및 수강 신청 : 1993년 2월 23일~26일
- 장소 : 각 신학 연구원
- 자격 : 감독의 추천을 받은 회원, 비회원
- 특전 : 모든 학비 및 교재를 교회에서 부담함. 교회 대학 유학시 많은 도움이 됨
- 입학 및 개강식
- 서울 동 신학 연구원 (02)928-0033 -1993. 3.13 오후 6: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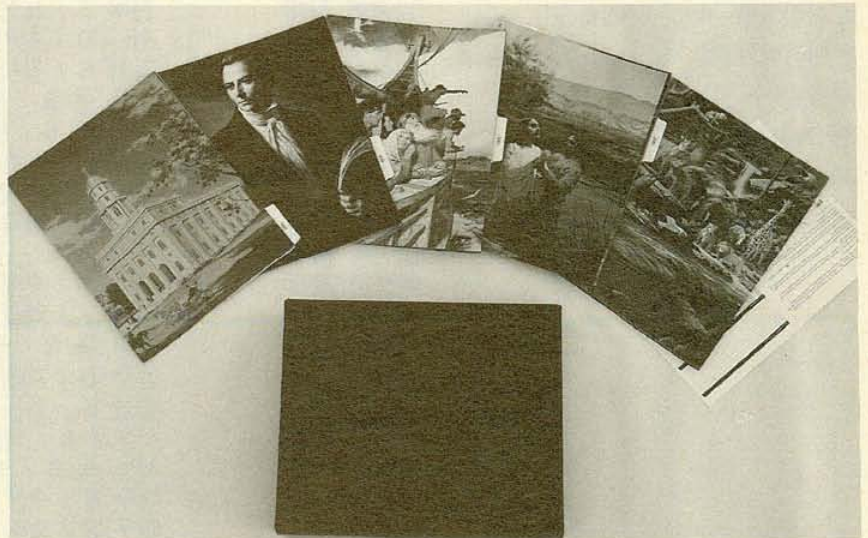
- 서울 서 신학 연구원 (02)336-1347 -1993. 3. 6 오후 3:30
- 광주 신학 연구원 (062)224-4535 -1993. 3. 6 오후 5:00
- 부산 신학 연구원 (051)862-9415 -1993. 3. 2 오후 7:00 울산 및 마산·진해 지역
- 1993. 3. 3 오후 7:00 부산 지역
- 1993. 3. 4 오후 6:30 진주 지역
- 1993. 3. 4 오후 7:00 대구 지역

* 추후에도 계속 등록 및 수강 신청 가능함.

새로 출판된 복음 그림 패키지

집회소 도서실에 자료를 완전히

구비하지 못한 곳의 교회 회원들을 돕고 가정 내에서 행해지는 가족 복음 토론 및 공과의 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복음 그림 패키지(Item No. 34730 320)이 제작



선교사 훈련원 제148기

(1993. 1. 4~1993. 1. 15)

완료되어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 복음 그림 패킷에는 104장의 그림이 있으며, 이 그림은 대부분 경전 이야기 및 교회의 역사적 사건들을 그린 것이다. 그림 각각의 치수는 216mm×279mm이며, 뒷면에는 그림에 관한 간단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다. 이 패킷에는 번호 분류 표식과 그림의 목차를 적은 유의 사항 용지 및 적절한 참조 성구도 포함되어 있다.

이 복음 그림 패킷은 한국 배부 센터에서 직접 구입하거나 주문 구입할 수 있다. 이 패킷은 접식 뚜껑이 달린 청색 플라스틱 상자에 담아 판매하며 가격은 10,000원이다.

교회 교과 과정 개발부의 웨인 린 형제는 “복음 공부를 할 때 영이 가장 중요한 교사이긴 하지만 시각 보조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복음 공부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고 가르칠 때에도 더욱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또한 “이 패킷은 성경의 장면 및 인물들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데서 사실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집회소 도서실마다 이 그림 패킷을 구비하여 단위 조직내의 회원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개인 및 가족도 이 패킷을 구입하실 수 있기를 적극 권유합니다.”라고 덧붙였다. □



뒷줄 왼쪽부터 : 민수정, 엄주희, 윤은진, 최정숙, 이윤순, 정귀옥, 정혜정, 김순덕
가운데줄 왼쪽부터 : 성명자, 오미정, 김수경, 이숙영, 한금신, 남경희, 임두빈
앞줄 왼쪽부터 : 문기영, 한재부, 문홍식, 김규곤, 한석용, 지석훈, 김성환, 조창훈

<성명>

김규곤 장로
문기영 장로
임두빈 장로
최정숙 자매
이숙영 자매
남경희 자매
한금신 자매
지석훈 장로
한석용 장로
김수경 자매
오미정 자매
정혜정 자매
김순덕 자매
정귀옥 자매
이윤순 자매
한재부 장로
문홍식 장로
김성환 장로
조창훈 장로
엄주희 자매
윤은진 자매
민수정 자매
성명자 자매

<출산지>

전주 S / 이리 W
부산 서 S / 창원 W
청주 S / 삼성 W
서울 서 S / 낙성대 W
강릉 D / 속초 B
전주 S / 노송 W
천안 D / 천안 B
강서 S / 강서 W
서울 동 S / 장위 B
서울 서 S / 봉천 W
안양 S / 시흥 W
부산 서 S / 진주 W
강서 S / 화곡 W
부산 서 S / 구포 W
대구 S / 수성 W
강서 S / 역곡 B
서울 북 S / 금촌 B
원주 D / 제천 B
영동 S / 영동 W
서울 서 S / 낙성대 W
서울 북 S / 녹번 W
대구 S / 수성 W
대구 S / 경주 B

<선교부>

서울 선교부
서울 선교부
서울 선교부
부산 선교부
부산 선교부
서울 선교부
서울 서 선교부
부산 선교부
부산 선교부
대전 선교부
대전 선교부
서울 선교부
서울 선교부
서울 서 선교부
서울 서 선교부
부산 선교부
부산 선교부
대전 선교부
대전 선교부
부산 선교부
부산 선교부
서울 서 선교부
서울 서 선교부